

온라인 노인 여가 복지 시스템

3조 | 발표 원정아

김호균, 원정아, 양동기, 윤선영, 이아현, 이진우

목차



**1부
문제제기**



**2부
소비자
니즈파악**



**3부
솔루션
소개**



**4부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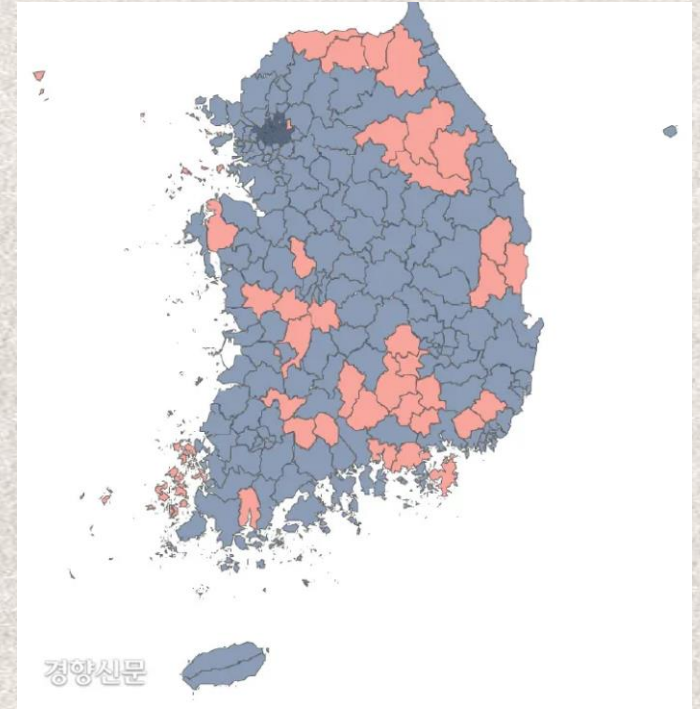
1 문제점

노인 복지관 없는 지자체 38곳, '지역 격차' 뚜렷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인 여가와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이 없는 지자체가 4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경로당은 많았지만 노인 복지관은 부족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과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노인복지관은 39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복지관은 서울(83개), 경기(62개), 부산(32개)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체 노인복지관의 36.4%가 있었다. 보통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은 1~2개가 설치됐지만 서울(강남구·성북구 6개, 은평구 7개)과 경기(성남시·수원시 6개)에서는 6~7개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노인 복지 시설 부족



복지 프로그램 부족

온라인으로 기존의 복지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



외로움 해소를 위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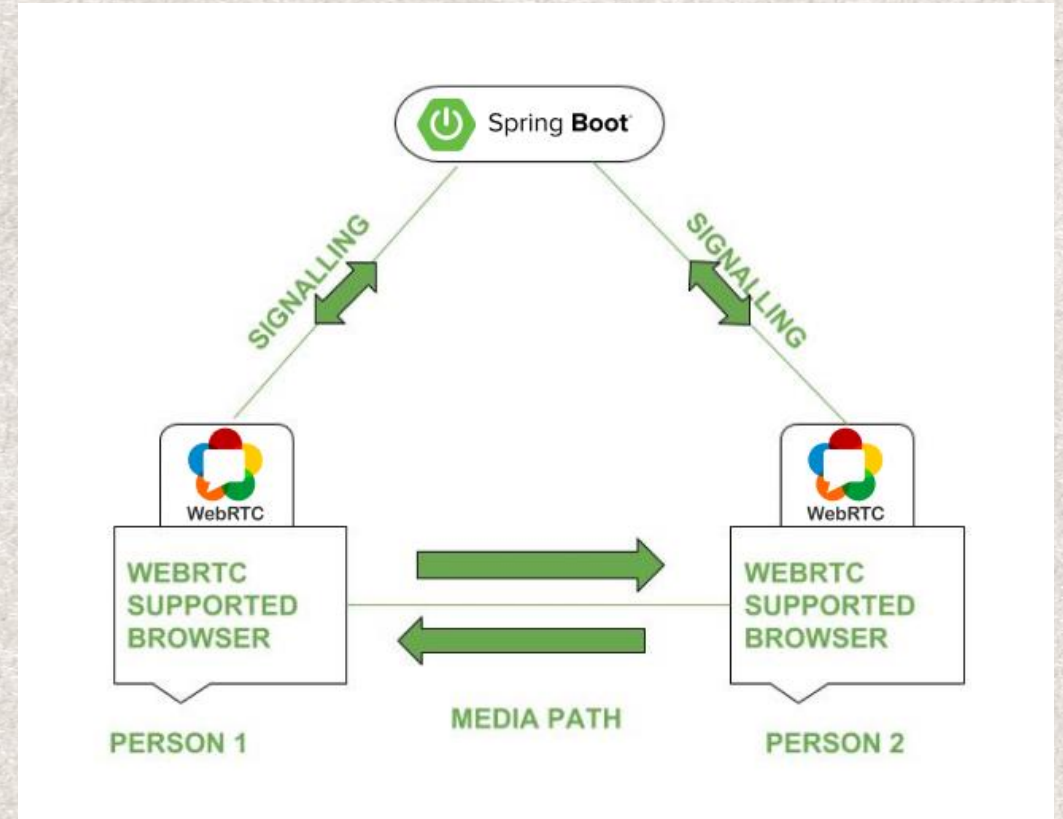
**복지관이 가깝지 않거나, 아예 근처에
존재하지 않아 접근성이 부족함**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 예상
**(경로당, 노인정보다 디지털 서비스가 더 익숙한
노년층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이 편함)**



3-1기 스택

- FE – 리액트
- BE – 자바 / 스프링



통신 서비스 아키텍처



3 Solution

음악 교실 ^^



가사





김싸피 선생님:
[공지]
12:00 ~ 12:30
노래
12:30 ~ 13:00
가사 외우기

말하기

음소거

화면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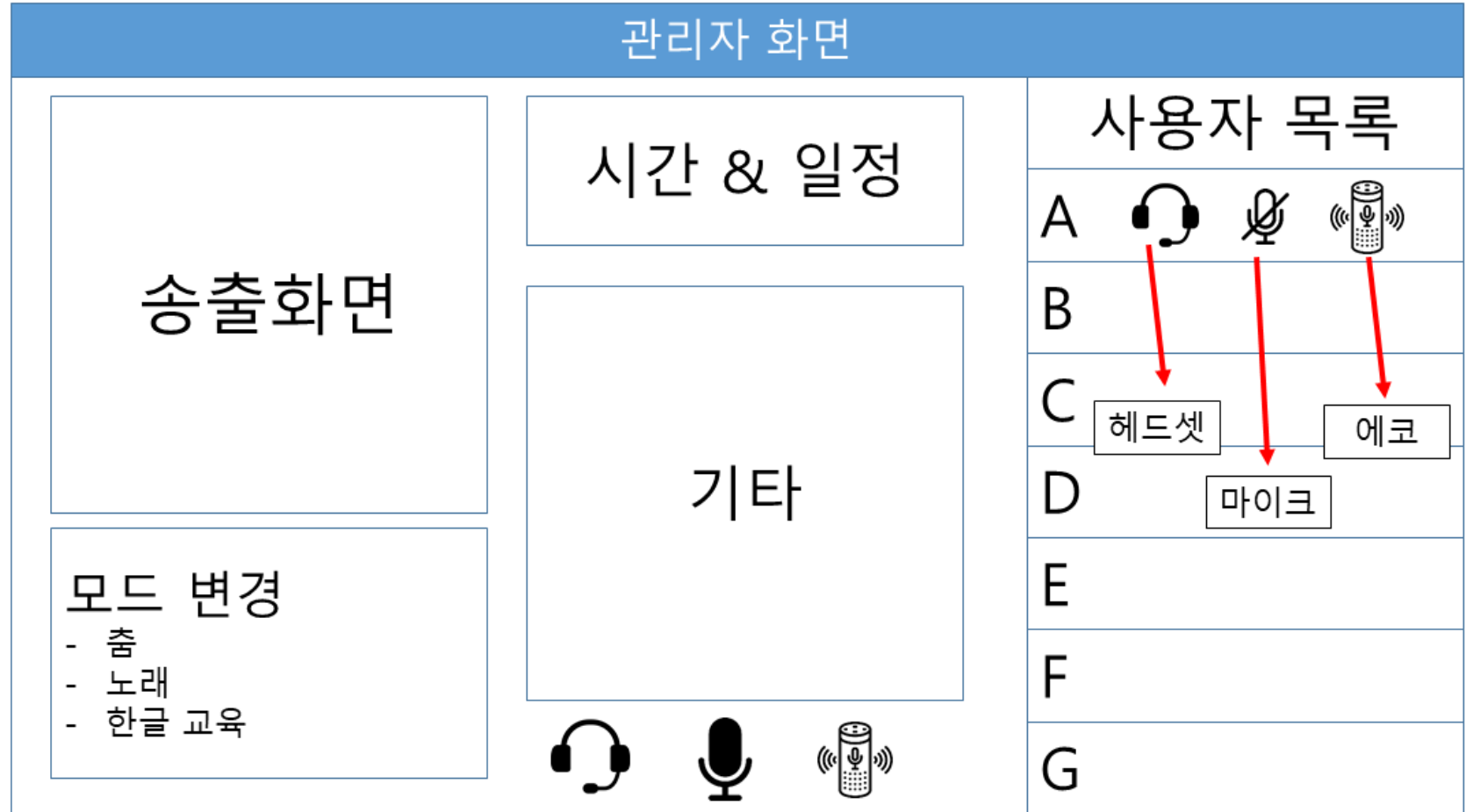
손들기

미러볼

박수

에코

나가기





자택에서 복지 시설과 공동체 향유 가능

부족한 인프라 극복 가능
(온라인 서비스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노인 세대로 진입한 디지털 친화 세대의 니즈 충족 가능
(노인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친숙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



Q&A